

출근시간대 진·출입 수월하게 원당중학교 앞 회전지대 설치



고양시 원당중학교 앞은 출근 시간마다 전쟁이었다. 고양대로에서 원당중학교로 진입하는 차량과 마상로에서 고양대로로 진출하는 차량 간 교통 상충이 그 원인. 그런데 지난 7월 인접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회전지대가 설치되면서 원당중학교 앞의 진·출입이 수월해졌다. 소셜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갔다.

글. 사진. 박창훈(고양시 소셜기자)



원당중학교 앞 도로, 지속적인 교통혼잡

원당중학교 앞은 아침마다 고양대로에서 학교로 진입하는 학부모·교직원 차량과 마상로에서 고양대로로 진출하는 차량들로 뒤엉키기 일쑤였다. 특히 박제궁 쪽으로 좀 더 진행하여 유턴하고 싶어도 도로가 좁고 혼잡하여 진입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인접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회전지대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고양대로에서 원당중학교로 좌회전하는 도로 / 교통이 혼잡한 원당중학교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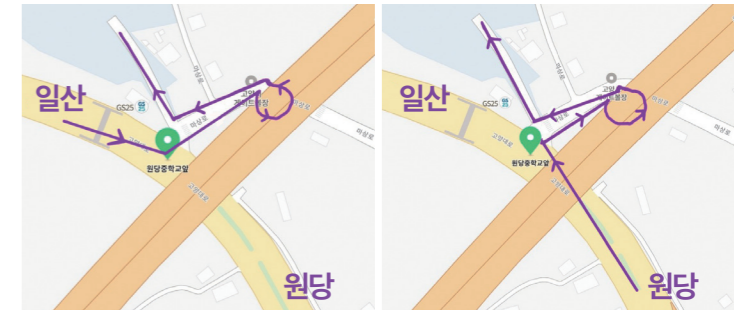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에 회전지대 설치

인접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회전지대가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고양대로에서 마상로에 진입하자마자 다시 원당중학교 방향으로 무리하게 좌회전할 필요가 없어졌다. 좌회전 차량에 막혀 문제였던 원당중학교로의 진·출입도 한결 수월해졌다. 고양시에 따르면, 교통 상충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오전 시간대에 1시간가량 회전지대 전용 신호를 운영, 더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회전지대 입구 / 회전지대 체험

필자는 지난 10월 초 직접 차량으로 회전지대를 체험했다. 이전에는 원당중학교에 진·출입하기 하려면 '좌회전 후 우회전'으로 진입하기에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회전지대를 이용하여 직접 운전을 해본 결과 비교적 수월하게 원당중학교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일산방면에서 원당중학교로 진입 / 원당역 방면에서 원당중학교로 진입



원당중학교 정문

작은 변화, 큰 만족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겪게 되는 불편함이지만,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 보면 보다 나은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원당중학교 앞 회전지대 설치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는 작은 변화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양시가 지난해 4월 '도로·교통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민하면서 저예산 고효율 행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더욱 기대된다. 🙌